

“전남광주 균형발전·시민주권 실현”…백승주·윤난실 부시장 취임

백승주 “지역 강점 연계해 격차 해소”…재정·투자 확보 강조

윤난실 “시민 뜻 정책·예산에 반영”…돌봄·복지 등 정책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균형발전부시장과 시민주권부시장에 백승주·윤난실 부시장이 각각 취임했다. 백 부시장은 지역별 강점을 연계한 균형발전과 재정·투자 확보를, 윤 부시장은 정책 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확대와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1일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민행배 시장과 실국장,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부시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두 부시장은 시민주권제와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

백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발전은 가진 자원의 크기보다 그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별 강점을 연계하고 재정과 투자를 적극 확보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백 부시장은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한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다.

윤 부시장은 시민이 정책 수립부터 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균형발전부시장·시민주권부시장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과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이 취임축하 꽃다발을 받고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평가까지 참여하는 시민주권 실현에 중점을 뒀다. 시민 의견을 듣는 데서 나아가 숙의와 공론을 거친 뜻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부시장은 “시민이 ‘정책의 공동 저자’가 되는 모습을 떠올린다”며 “시민이 정책 수립부터 실행·평가까지 참여하고, 숙의와 공론을 거친 시민의 뜻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시민주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돌봄과 복지, 보건의료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은 시민의 삶”이라며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부시장은 광주시의회 의원과 경산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 등을 지내며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민행배 시장은 격려사에서 시민이 ‘통합하길 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두 부시장과 함께 통합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오는 26일 동부청사에서 산업경제부시장, 29일 광주청사에서 행정문화부시장 취임행사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장흥 청년농업인 김동건, 전남광주 첫 ‘수도작 마이스터’ 지정

가루쌀·우리밀 재배 가공 등 부가가치 창출

장흥군 청년농업인 김동건(36·사진) 아팔피농원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7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수도권 부문에 최종 합격해 전남광주 최초로 수도권 분야 농업마이스터에 지정됐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따르면 농업마이스터는 품목별 전문 재배기술과 농업경영 능력, 현장 지도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시험에서는 전국 31명이 최

종 합격했으며, 수도권 분야는 제3회 지정 이후 오랜 공백을 넘어 전문농업인 양성

김동건 대표는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약 10ha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며 가루쌀과 우리밀을 재배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체계적인 재배관리로 2025년 생산한 가루쌀의 특등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였으며, 우리밀 재배에는 바이오차 투입과 물관리 등 탄소중립 농업기술을 적용해 저탄소 농산물 및 농



산 물 우수 관리(GAP) 인증을 받았다.

또한 직접 재배한 가루쌀과 우리밀을 활용해 가공제품 ‘OK크래커’를 개발하고 중국 수출에 나서는 등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가공·유통·수출을 연계한 부가가치형 농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김동건 아팔피농원 대표는 “아버지로부터 현장의 중요성과 두 단계 앞을 내다보는 농업을 배우며 성장했다”며 “앞으로 재배기술뿐 아니라 농지관리, 정책사업,

농업경영, 가공·유통 등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농업인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자신의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업마이스터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장흥군 관계자는 “김동건 대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영농현장에 적용해 온 청년 농업인으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농업마이스터에 지정됐다”며 “전남광주 최초 수도권 농업마이스터로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GS칼텍스와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상공회의소 등 민·관·산 연합 봉사자들이 최근 월호도에서 찾아가는 이동민원봉사실을 열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제공=GS칼텍스

GS칼텍스, 여수세계섬박람회 봉사 ‘훈훈’

여수해경·여수상의 등과 월호도 찾아 환경 개선·나눔 실천

GS칼텍스는 지난 20일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상공회의소, 여수미용봉사협회 등과 함께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에서 민·관·산 연합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중 섬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2024년 12월 출범한 여수지역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의 실천 프로젝트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봉사활동에는 명성민 여수해양경찰서장,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김종은 GS칼텍스 대외상무를 비롯한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여수해경 함정을 이용해 월호도에 입도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마을 환경정화, 꽃밭 가꾸기

등을 진행했다.

또 찾아가는 이동민원봉사실을 통해 주민들에게 구급약품이 구비돼 있는 구급함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와 함께 가정의 전동 교체 등도 펼치며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섬박람회 기간에 섬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여러 기관·단체가 힘을 모아 주민들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눔과 상생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는 ‘천원의 행복’, ‘한가위 사랑의 온정 나누기’, 청소년 성장 지원 프로그램 ‘새물교실’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여수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태양광 발전수의 사회 환원 ‘화제’

임대주택 태양광 발전수의
공용 전기요금 일부 감면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임대주택 옥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임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화제다.

21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공사가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수의 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전달식은 이날 오전 광주역다사로움 행복주택에서 열렸다.

지원금은 각 단지 관리비에 부과되는 공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데 사용될 예정으로, 임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도시공사는 2021년 농성빛여울재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20일 공사가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수의 사회 환원사업’으로 마련된 수익금을 임주민 에너지지원금으로 전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를 시작으로 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발전수의 일부를 임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김승남 사장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창출한 가치를 임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돌려드릴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

지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수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목포대, 이주배경 가정 ‘가족회복력’ 강화

이민종합지원센터·이주민 커뮤니티와 공동 프로그램 운영

국립목포대학교 국제협력처 전남다문화융합교육사업단은 오는 25일까지 신해양산염단지캠퍼스에서 ‘가족회복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2026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의 하나로, 영암 관내 국제결혼가정을 포함한 이주배경 가정이 가족 단위로 참여하며 전남이민종합지원센터와 각급 이주민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이주민 정책의 단위가 개인에서 가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이주배경 가정은 경제적 압박과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본국 확대가족과 단절된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동시에 증폭되는 구조에 놓여

있어 일반 가정보다 위기에 취약하다. 특히 자녀가 부모보다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하면서 자녀가 가정의 통역자이자 대외 창구 역할을 떠맡는 ‘언어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부모의 교육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자녀에게 연령에 맞지 않는 과도한 역할 부담을 지우게 된다.

사업단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이 위기를 겪더라도 서로를 지원으로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적 역량을 미리 길러 두는 회복력 중심의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프로그램 기획했다.

교육은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목포대 역사콘텐츠 전공 고석규 명예교수가 ‘기후위기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가족



국립목포대학교 국제협력처 전남다문화융합교육사업단은 오는 25일까지 신해양산염단지캠퍼스에서 ‘가족회복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공동의 화두를 제시하고, 교육학과·다문화융합학과 이동은 교수가 ‘체험활동 기반 상호존중 상호지지자’ 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커뮤니티와의 공동주

진을 통해 이주민이 지원의 수혜자가 아닌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가정이 지역 지원체제와 실제로 연결되는 점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훈기 기자 leek2123@

나주 광남고 학생 KAIST 최종 합격 쾌거

학생 배움 주체 참여·지역교육 정책 값진 결실

나주 광남고등학교 학생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거둬 화제다.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은학교 교육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나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광남고는 나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저녁 시간을 활용한 ‘빛_나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서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며, 학생 중심의 교육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빛_나다’ 프로그램은 진로 독서와 인문·과학·철학 분야의 깊이 있는 읽기, 지



역 생태·기후 문제 탐구, 시사 토론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합창과 밴드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공동체 역량을 기르고, 플로깅과 저녁 체육활동으로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도 함께 실천한다.

광남고는 다양한 탐구와 체험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성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학생 중심 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산되도록 힘을 계획이다.

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